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발행인: 홍상태 편집인: 김재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전화: 02)794-4146 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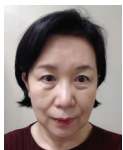
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6년 7월 현재 254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6,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5, 수의학 3, 간호학 19, 영양학 6, 생명과학 4)이며, 개인회원은 44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애프터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크림스인터랙티브코리아(주), Editage,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네이버(주), XMLink(주) 총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JCR Impact Factor 변화

2015 SCI impact factor가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2015에 발표되었습니다. SCI에 등재된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의 현황과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의편협 홈페이지 'News & Events' 기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인홍(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6월 13일 톰슨로이터스가 발표한 2015 학술지인용색인(Journal Citation Reports) IF에 따르면 의편협 학술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2015년 SCI(E) 등재된 34종 의편협 학술지 중 14종은 IF가 상승, 5종은 하락, 11종은 0.1 이내로 미미하게 변화하였고, 4종은 처음 IF가 발표되었다(표 1). 주목할만한 것은 국내 발행 학술지로는 최초로 IF 4.0을 넘는 학술지가 3편이라는 점이다(표 1의*). 특히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생화학분자생물학회 발행)은 5.0을 넘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동일 분야의 전통 학술지인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미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발행)의 IF가 수년전부터 내려가거나 주춤하는 경향과 비교하면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의 약진은 몹시 고무적이다. Cancer Research & Treatment(대한암학회 발행)은 꾸준히 IF가 상승하는 잡지인데 올해도 한 단계 향상되었고 Journal of Stroke(대한뇌졸중학회 발행)는 처음 IF가 발표되었는데 출발부터 훌쩍 앞서가고 있다.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Nature Publishing Group 출판)과 Asian Nursing Research(Elsevier 출판)을 제외한 32종 학술지는 국내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어 올해 JCR IF 결과는 학술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국내 출판사의 충분한 경쟁력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SCI(E) 등재 학술지는 총 8,778종이며 미국(2,927종), 영국(1,815종), 네덜란드(692종), 독일(591종), 일본(234종), 중국(185종), 프랑스(172종), 러시아(146종), 이탈리아(120종)와 비교하면 한국은 105종으로 상위권에 속한다(2016년 6월 21일). 국내 SCI(E) 등재 학술지로서 생의약학 이외 분야에서 IF가 가장 높은 학술지는 IF 4.179인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한국공업화학회 발행, Elsevier 출판)이다. 2014-2015년 의편협 학술지 대부분은 IF 1.0-2.0 사이에 분포하지만 2.0을 넘는 학술지가 2014년 4종에서 2015년 7종으로 증가하였다(표 2). 한편 2015년 JCR IF에 발표된 의편협 학술지의 자기인용 비율은 20-30% 사이 3종, 10-20% 사이 13종, 10% 이하가 18종으로 낮은 편이다. 자기인용은 전문세부분야처럼 학문분야가 제한되거나 출판 편수가 적을 때는 높을 수 있지만 학술지가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편집과정에서 의도적 조작이 우려되면 JCR IF를 일정기간 발표하지 않기도 한다. 2015 JCR

표 1.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2015 JCR IF

* IF 4.0을 넘는 학술지

학술지명	Impact Factor		Total Cites	
	2014	2015	2014	2015
Allergy Asthma Immunol Res	2,425	2,309	563	798
Ann Dermatol	1,393	1,325	636	793
Ann Lab Med	1,472	1,870	224	408
Ann Surg Treat Res	해당없음	0.730	해당없음	104
Asian Nurs Res	1,000	0,849	138	181
Biomol Ther	1,727	2,127	370	544
*Cancer Res Treat	3,318	4,245	714	993
Clin Exp Otorhinolaryngol	0,852	0,855	318	384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해당없음	1,500	해당없음	193
*Exp Mol Med	3,446	5,164	2,212	2,629
Gut Liver	1,810	2,000	854	1,075
Int Neurourol J	1,061	1,344	166	201
J Adv Prosthodont	0,640	0,844	190	301
J Breast Cancer	1,578	1,854	396	556
J Clin Neurol	1,700	1,876	537	690
J Gynecol Oncol	2,494	2,522	511	578
J Korean Acad Nurs	0,380	0,549	359	482

학술지명	Impact Factor		Total Cites	
	2014	2015	2014	2015
J Korean Med Sci	1,266	1,256	3,710	4,158
J Korean Neurosurg Soc	0,636	0,599	1,085	1,209
J Neurogastroenterol Motil	2,296	1,771	566	641
J Periodontal Implant Sci	1,145	1,108	224	250
*J Stroke	해당없음	4,795	해당없음	244
J Korean Surg Soc	0,730	0,973	384	453
J Vet Sci	1,164	1,076	847	888
Korean Circ J	0,753	0,706	544	609
Korean J Intern Med	1,426	1,679	748	943
Korean J Orthod	1,173	1,162	191	265
Korean J Parasitol	1,151	1,027	1,225	1,037
Korean J Physiol Pharmacol	1,378	1,544	542	567
Korean J Radiol	1,571	1,592	1,369	1,473
Mycobiology	해당없음	0,573	해당없음	407
Nutr Res Pract	1,443	1,416	613	801
Psychiatry Investig	1,280	1,500	510	669
Yonsei Med J	1,287	1,154	2,566	2,710

표 2.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IF 분포

	2014	2015
≥5.0	0	1
≥4.0, <5.0	0	2
≥3.0, <4.0	2	0
≥2.0, <3.0	2	4
≥1.0, <2.0	19	18
<1.0	6	9
총	30	34

IF는 2013-2014년 출판된 논문을 2015년 동안 SCI(E) 등재 학술지가 인용한 회수로 산출한다. 새로운 학문이나 연구자 수가 적은 분야이면 좋은 학술지라도 IF가 낮을 수 있고 학술지의 우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의 업적은 학술지 IF와 더불어 해당 논문의 인용회수를 참고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술지의 평판은 많은 연구자가 읽고 인용하는 지표가 기본이므로 여러 DB에서 제시하는 인용지수로 가능되고 JCR IF도 중요한 정보이다. 올해 발표된 JCR IF 결과는 의편협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히 의미가 크다. 그동안 회원 학술지들이 노력하여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의편협에서 항상 강조해온 것처럼 이처럼 향상되고 있는 국내 학술지 논문을 적극 인용함으로써 국내 학술지의 발전뿐 아니라 해당 학문의 국제성을 확대해 나가기를 여러 연구자들에게 제안한다.

Journal of Stroke SCI IF 향상 관련 경과 보고

김중성(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장)



대한뇌졸중학회지(Korean Journal of Stroke)는 1999년에 한글 잡지로 창간되었으며 2011년 7월 12일 KoreaMed에 등재되고 2012년 1월 3일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학회지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대한뇌졸중학회지를 영문으로 전환하고 제호도 Journal of Stroke(이하 JoS)으로 전환하여 올해 2016년 5월호까지 총 11화를 발행하였습니다. JoS는 1년에 총 3회(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Editor-in-Chief (편집위원장)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가, Associate Editor(부편집위원장)로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방오영교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교수가, Assistant Editor는 아주대병원 신경과 이진수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ditorial Board(편집위원회)는 뇌졸중 분야에서

저명한 10개국(Australia, Brazil, China, France, Germany, India, Japan, Singapore, Thailand, USA) 출신 해외 학자 14 명과 국내 학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oS는 높은 수준의 논문을 게재하고 발행 날짜를 엄수하여 영문학회지로 전환한 후 3 회 발행한 상태인 2013년 12월 10일 Pubmed Central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SCI(E)등재를 위해 JoS 주요편집 임원들이 cover letter, why JoS should be SCI-REGISTERED?, editorial activity, publications and other activities, aims and scope of the Journal of Stroke 등의 타이틀을 포함하는 소개 내용을 책자(총 15 page, 10부)로 제작하여 2014년 8월 14일 톰슨로이터사에 on-line 및 air mail로 접수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9일자 톰슨 로이터사로부터 JoS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1년에 3번(1월, 5월, 9월) 발행하는 JoS 학술지를 발행시마다 발송해 달라는 E-mail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톰슨 로이터사로부터 SCI(E)에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CI 등재를 요청한 지 불과 2달 만에 통과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SCI 등재된 이후 점점 더 훌륭한 논문이 국내외에서 접수되었고 등재 후 1년 반 정도 지난 2016년 6월 14일자 톰슨 로이터에서 발표된 SCI(E) 2015 Impact factor(이하 IF)에서 JoS의 첫번째 IF는 4.795로 발표되었습니다. 임상 뇌졸중학을 다루는 저널로서는 Stroke (IF 5.78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오랜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 저널인 Cerebrovasc Dis(유럽 뇌졸중 학회지, IF 3.359), In J Stroke(세계 뇌졸중 학회지, IF 3.044), J Stroke Cerebrovasc Dis(IF 1.599) 보다 월등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하는 SCI(E)에 등재된 Journal 중 Exp Mol Med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임상 저널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JoS 는 최단기간에 PMC에 이어 SCI(E)에 등재되고 첫 번째 IF 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JoS 편집 임원들과 대한뇌졸중 학회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대한학술지편집인협회 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도움에 힘입은 바 큼니다. 높은 IF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이 우리들의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었으며, 향후 외국인들도 중요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국제적 학술지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6 의편협 워크숍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7월 19일(화)에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6 의편협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Turnitin사의 Content Partner Manager인 Shivendra Naidoo가 Diagnosing Similarity: Testing for Unoriginal Research in the field of Medicine을 주제로 강의하고, Crossref에서 두 분의 연자가 최근 동향과 New Crossref Initiatives(Early content registration and DOI event tracker)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며, 홍성태 의편협 회장(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편집 및 발간 Workflow 변경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학술논문문의 신속한 발간 및 온라인 조기 출판이 가능하여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2016 의편협 워크숍 일정

15:00-15:10	개회, 워크숍 소개
15:10-15:50	Diagnosing Similarity: Testing for Unoriginal Research in the field of Medicine Shivendra Naidoo (Content Partner Manager, Turnitin, UK)
15:50-16:00	질문, 토의
16:00-16:30	Crossref Update and Using Crossref services in the publishing process Rachael Lammy (Member & Community Outreach Manager, Crossref)
16:30-17:00	New Crossref Initiatives (Early content registration and DOI event tracker) Jennifer Kemp (Member & Community Outreach Manager, Crossref)
17:00-17:30	Successful change of workflow in publishing a medical journal for fast and early online publication 홍성태 (의편협 회장, JKMS 편집장)
17:30-18:00	종합 토론

제7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7회 논문작성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8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의편협 사무국 이메일(kamje@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워크숍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재와 당일 중식,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8월 20일(토) 오전 9시~5시 30분

장소: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내 마리아홀

논문작성 워크숍 일정

09:00-09:05	인사말	홍성태 (의편협 회장)
09:05-09:10	과정 소개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09:50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홍성태 (의편협 회장)
09:50-10:30	표지, 제목, 및 초록 다듬기	이선영 (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0:30-10:50	휴식	
10:50-11:30	서론, 재료 및 방법 및 결과 다듬기	노주원 (동국의대)
11:30-12:10	EndNote X7을 이용한 의학 논문 작성	박상하 (새우리병원)
12:10-13:30	점심식사	
13:30-14:20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림파일 작업 도구	김지형 (서울성심병원)
14:20-15:20	•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 • 웹에서 클릭만으로 메타분석 끝내기	문건웅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15:20-15:40	휴식	
15:40-16:20	Writing English Medical Papers: Errors and Recommended Expressions	장기홍 (아주의대)
16:20-17:0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박중원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17:00-17:20	Recent trends in medical publication and Wiley publishing services	Mark Robertson (Vice President, Publishing Director, Research, Wiley Asia-Pacific)
17:20-17:30	종합 토론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APAME 2016 안내

아시아지역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학술정보 교류의 장인 'APAME 2016'이 8월 26(금)부터 28일(일)까지 사흘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Quality, Collaboration and Public Acces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8월 10일(수)까지 APAME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등록 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16년 8월 26일(금)~8월 28일(일)

장소: 태국 방콕

등록 사이트: <http://www.apame2016.com/registration.html>

2016년도 하반기 의편협 주요 일정 안내

의편협에서 주최하는 올해 하반기 주요 학술행사 및 평가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15차 KoreaMed 등재 7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6년 10월 13일(목), 서울의대 행정관 2층 대회의실
- 제37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6년 11월 10일(목), 서울의대 행정관 2층 대회의실
- 제10회 편집인아카데미 : 2016년 12월 9일(금)~10일(토), 연세의대 ABMRC 유일한홀

2017 International Peer Review Congress 개최 안내

2017년 9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미국 시카고 Swissotel에서 2017 International Peer Review Congress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에는 영향력 있는 의과학 학술지의 편집인 및 발행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정보 전문가, 사서, 언론인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논문 초록 제출 사이트는 2016년 12월에 오픈될 예정이며, 제출 마감 기한은 2017년 2월 15일까지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9월 10일(일)~12일(화)

장소: 미국 시카고 Swissotel

공식사이트: <http://peerreviewcongress.org/>

제36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지난 2016년 6월 9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평가 대상 학술지 중 평가를 신청한 총 9종의 학술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한국모자보건학회지,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rrhythmia,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Oral Biology Research, Osteoporosis and Sarcopenia)가 평가를 받았고, 이 중 8종의 학술지가 3.0점 이상을 받아 KoreaMed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1.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평점: 3.11)

한국모자보건학회지는 한국모자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년 2회 발간되며, 금번 평가 대상은 2016년 1월호(20권 1호)로서 종설 1편, 원저 7편 등 총 8편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 목차 란에 불필요한 윤리 규정, 심사 규정, 투고 규정 등이 제시됨과 동시에 이 규정들에 논문 쪽수와 연계한 쪽수를 부여하고 있어 논문 쪽수 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고규정에 논문 종류별 작성요령과 이해관계 규정, 책임저자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고, 표와 그림에 대한 작성 요령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논문 제목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나, 저자 표기에서 학위를 기술한 논문(p.36), 소속기관에서 한글과 영문 소속부서명이 상이하거나(p.1) 도시명 또는 국가명을 누락한 논문(p.54, 66) 등이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초록에서 투고규정과 달리 Conclusion을 Conclusions로 쓴 논문들이 있으며,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p.13,54) 및 단어가 투고규정을 초과한 논문(p.66)이 보입니다. 한글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한글 투고규정이 없는 관계로, 본문의 소제목이 논문마다 상이해 본문 체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 방법이 투고규정에 위배되거나 기자재의 설명에서 제조사 등이 누락된 논문이 다수 발견되며, 참고문헌 목록에서 학술지명의 표기가 약어명과 정식명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보입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검색일이 누락되어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issue number를 잘못 표기한 논문(p.34,52,53), 저자명 또는 학술지명에 오자가 있는 논문(p.64,74) 등이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심볼 표시에 오류가 있는 논문(p.17), 표 제목에 오자가 있는 논문(p.49), p값을 0으로 표기한 논문(p.80)이 발견되며, 웹 화면을 캡처한 한 논문은 해상도가 낮아 식별하기가 어렵고(p.19), 도형그림의 설명이 부적절하여 이해가 어려운 논문(p.70)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글 논문을 게재하는 한 한글 투고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글 및 영문 투고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평점: 3.52)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은 대한치과마취과학회와 Federation of Asian Dental Anesthesiology Societies가 공동 발간하는 공식학술지로서 계간으로 발행되며, 금번 평가 대상은 2016년 3월호(16권 1호)로서 종설 2편, 원저 5편, 증례보고 3편 등 총 10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며 표지 디자인이 세련되고 미려합니다. 투고규정에서 표지 작성 요령과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투고규정에 논문 쪽수와 연계한 쪽수를 부여하고 있어 논문 쪽수 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논문 종류별 작성 요령에서 종설의 작성 요령이 상세하지 않으며, 원저의 경우 laboratory investigation과 experimental investigation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기에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고문헌과 표/그림의 수를 '30-40', '4-6'과 같이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아 혼란을 주며, 이온의 표기법 예시(Na⁺, Mg²⁺)에 오류가 발견됩니다. 논문 제목과 저자명의 표기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나, 소속기관의 표기에서 소속부서명의 표기 오류(p.9) 또는 대소문자 표기 오류(p.31), 소속기관의 도시명 대신 도명을 쓴 논문(p.39)이 있습니다. 초록에서 불필요하게 그림을 인용한 논문(p.1), Background의 문장이 다른 초록과 달리 절로 기술된 논문(p.17),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p.49)이 있으며, 중심단어의 표기가 투고규정과 달리 알파벳순을 지키지 않은 논문이 다수 발견됩니다. 본문의 체재는 투고규정과 달리 Conclusion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 많으므로 투고규정대로 편집 관리를 하거나, 투고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에 학술지명을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쓰거나 학술지 약어명에 오자가 있는 논문(p.14,23,24,29), 저자명의 오기가 있는 논문(p.29), 서지사항에 오기가 있는 논문(p.47)이 있으며, 표에 가로줄이 있는 논문(p.33),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p.19,33), 사진에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p.50), 사진 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려운 논문(p.56) 등이 발견됩니다. 또한 도형 그림에서 약어해설의 누락과 오자가 있는 논문이 있으며, 같은 논문에서 사용허가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림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집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원저가 아닌 그림을 인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고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International Journal of Arrhythmia (평점: 3.25)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의 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2016년 3월호(17권 1호)에는 종설 5편, 원저 3편, 증례 3편, 편집자의 글 1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이 세련되며 해당 호 논문의 사진을 배경으로 목록을 표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으며 참고문헌 오류가 적은 것은 학술지의 편집과정에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빈 페이지는 메모용이라는 용도를 기재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후 인쇄본에서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학술지 인용이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며, 해당 학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라 해도 약자 설명이 일부 누락된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합니다. 논문에서 Limitation 소제목이 있는데 투고규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학술지 운영에서 필요하다면 투고규정을 수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Discussion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고규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 없는 항목이 있어, 투고규정 제정일자, 제목작성 요령,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의 삽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에 제호를 변경했는데 한국 ISSN center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NLM catalog에도 납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회 사정으로 발간처를 출판사로 표기한 점이 특이했는데, 이런 점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연락처를 명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며 일부 보완할 점을 정비하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 (평점: 3.87)

Society of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의 공식학술지로 연 3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2016년 3월호(5권 1호)에는 종설 9편, 원저 2편, 증례 1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며 페이지를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SCI 인용지수가 0.302로 높은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이미 국제적인 학술지로서 종설 9편 중 6편이 해외 저자 논문이었고, 이는 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총 12편의 논문 중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SCI 인용지수가 높은 것은 이런 해외 저자들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오류가 적은 점은 좋았으나 국내 학술지 인용이 적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학술지 website와 인쇄본에서 간기 표기가 상이한 점은 전환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향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록에서 오자가 보이고 문장이 어색한 곳이 있으며 중심단어 수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이 발견되는 부분은 향후 편집 과정에서 검토하여 좀 더 완성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표에서 약자 설명이 빠진 것,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것 등 역시 편집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진은 선명했으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나 사진에서 보이는 특이 소견에 대한 표시가 부족한 논문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미 SCI 인용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학술지로, 일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면 국제적인 학술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 (평점: 3.20)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2015년 12월(2권 2호)에는 종설 2편, 원저 3편, 증례 1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무난하였는데, 표지 아래쪽의 학회 로고가 학회 글자 크기에 맞추다 보니 너무 작아져서 좀 더 크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고규정이 매우 자세하였고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잘 정리된 점이 우수합니다. 투고규정의 분량이 많은데도 한글판, 영문판 모두 오류가 별로 없어서 관리가 잘 된 학술지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참고문헌 오류가 적은 것도 우수한 점인데, 국내학술지 인용빈도가 낮은 점은 아쉽습니다. 컬러로 인쇄해야 특이소견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흑백으로 인쇄한 논문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 작성에서 사용 용어가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p.83 표1,2,3)이 있어서 편집위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직 학술지의 별도 홈페이지 없이 학회에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게 되어 있는데, 회원 로그인 없이 학술지 검색은 가능하지만 향후 KoreaMed LinkOut을 고려하면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NLM에 납본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PMC 등재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납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간기에 맞춰 학술지를 발간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평점: 3.08)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는 1999년 창간되어 연 2회 발행되고 있는 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의 공식 국문 학술지입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5년 12월호 26권 2호입니다. 이번에 평가한 호에는 4편의 종설, 5편의 원저, 4편의 증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영문명의 표시가 다소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고 약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지 도안은 세련되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page에서의 오른쪽 세로 글자가 알아보기 힘든 점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위치한 논문 투고규정은 상세하게 잘 분류되어 있으며 글씨체와 글씨 크기, 줄 간격도 적당해 보입니다. 논문의 종류별로 논문 구성 요소 및 논문 작성 기본 요령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 저자를 비롯하여 각각의 저자 역할의 규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문 투고규정은 보통 뒤에 두는 것이 좋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재된 논문들이 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록의 글자 수도 적절하며 중심 단어 선택도 적절합니다. 다만 간혹 오자가 보였습니다(p.112, 117, 127 등). 초록 밑에 그 논문의 서지 정보를 제시하여 쉽게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간혹 표에 세로줄이 있거나 약어의 설명이 빠진 경우도 있었으나(p.119, 124, 128) 대체적으로 투고 규정에 맞게 편집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글자 크기나 글씨체도 읽기에 편하였으며, 도형,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편집 되었습니다. 참고문헌은 issue가 제시된 것이 다수였으나 간혹 issue가 없는 논문도 있었기에 투고규정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술지의 발행인, 편집인, 연락처, 인쇄처가 모두 명기 되어있으나, 다만 추가로 학술지의 홈페이지가 명기 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투고 규정을 잘 지키고 편집이 잘 된 우수한 학술지로 생각합니다.

7.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평점: 4.03)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학회지는 2008년 4월 창간되어 연 3회 발행되고 있는 The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의 공식 영문 학술지입니다. 이 번 평가 대상은 2016년 5월호(9권 2호)입니다. 이번에 평가한 호에는 4편의 종설, 1편의 translation research review, 3편의 원저, 1편의 증례, 2편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분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synapse를 형상화하여 학회를 잘 상징하고 미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목차 맨 밑 부분에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표지 하단의 목차 요약 항목은 시인성이 부족하고, 내부의 본 목차 란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내부의 본 목차 란에서 translation research review를 설정한 것은 종설과 다른 별도의 논문형태로 독자들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용어 면에서도 translation research는 translational research의 오기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고의 레이아웃 측면에서 유독 종설만 다른 원고형식과는 다른 디자인의 첫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논문들이 특이해 보일지는 몰라도 한 학술지내에 수록된 논문들이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첫 페이지 디자인을 가지는 경우는 없기에 편집진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 뒤에 위치한 논문 투고 규정, 판권 관리 항목은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오류가 없고 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도 적절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관련 규정과 출판윤리 관련 규정을 투고자나 독자가 찾기 힘들게 되어있으므로 연구윤리 부분을 지금보다 더 자세히 서술해주면 훨씬 완벽할 것 같습니다. 투고 규정에는 취급 논문의 범위와 간기가 포함되어 있고 논문의 종류별 구성 요소와 작성 요령이 적절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기관윤리심의위원회 등 학회지 심사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담겨 있으나 이해관계 관련 규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투고 원고 작성의 평가 항목인 제목, 초록, 중심 단어, 그림, 사진, 도표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으나, 제목 작성 요령의 보완과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이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고규정에 책임 저자에 관한 사항 및 저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넣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논문의 제목, 저자 이름, 소속 사항은 논문끼리 통일성이 지켜져 있으며 미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 색을 이용하여 세련되어 보입니다. 또한 초록의 글자 수도 규정에 맞으며 중심 단어들도 대부분 MeSH에 검색되었고, 모두 서술형이나 약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설의 구성요소 중 Conclusion과 Conclusions가 혼용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어, 종설 형식에 대한 안내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규정을 지켜 표기 되었으나 한 논문에서만 참고 문헌 표기에 작은 오류가 있어 아쉽습니다. 표는 정렬에 일관성이 있고 각주 설명이 적절하였으나 약어해설이 부족한 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크기나 배치가 적절하여 알아보기 쉽고, 색이 들어가 미적으로도 우수해 보입니다. 도형 그림은 흑백 인쇄로 인해 선명도가 떨어져 보이며, 설명 체제(약어해설, 표식설명 등)에 일관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권페이지에서는 학술지의 발행처, 편집인, 연락처와 인쇄처가 명기되어 있으나,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기한 사항을 보완하시면 전반적으로 편집, 디자인, 표기 면에서 완벽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Osteoporosis and Sarcopenia (평점: 3.02)

Osteoporosis and sarcopenia는 2015년 9월 창간되어 지금까지 총 4번 발간되었으며, 금번 평가대상은 2016년 3월호(2권 1호)입니다. 우선 표지 도안은 대나무를 척추와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등 상당히 세련되어 있으나 학회지처럼 보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뒤표지에 목차를 표현하여 보기에 매우 편하나, 공간을 잘 배치하여 좀 더 짙은 느낌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위원 명단과 목적과 분야, Contribution 등 다소 산만한 배치를 좀 더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 및 편집인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맨 뒤쪽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대한 제시 등 좀 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며, 윤리에 대한 내용이 같이 제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종설과 원저 체제가 다르나 투고규정에 관철하고 표시하는 대신, 차이점을 제시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는 영문 목차만 있으며 특별히 오류는 없습니다. 저자 소속 밑에 논문 접수날짜 채택 날짜를 배치함으로 인해 산만한 느낌을 주므로 이 내용은 왼쪽 아래 DOI 부분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DOI를 왼쪽 상단에 배치하면 훨씬 눈에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은 형식을 원저와 증례, 종설 각각에 대하여 따로 규정해 놓았고 이에 맞추어서 형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중심단어가 MeSH 단어가 아닌 것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경우 몇 개의 오류가 있습니다(p.1, 2 등). 우선 종이 질이 좋아서 보기 편하였으나 글자 크기가 눈으로 보기에 작고, 행간 간격이 좁아서 한눈에 보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단어 중에서 영국식으로 표현한 단어와 미국식 표현 단어가 혼재되어 있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본문의 소제목을 일관되게 규정하였고 각 논문들이 이를 잘 지켜 통일성이 있어 보이나, 번호가 잘 맞지 않는 부분(p.7)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꼼꼼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표는 대부분 형식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appendix를 3page에 걸쳐 배치하는 것(p.8-10)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supplementary로 배치하거나 좀 더 조밀하게 배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이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p.6-7) 도형 글씨 크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등 크기와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p.22)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프들도 회색으로 표현하였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내용을 컬러로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표기에서는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참고문헌에 대한 어깨번호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오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처에 대한 표기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4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재평가회 결과

의협에서는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KoreaMed 등재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2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재평가회에서는 7종(대한이식학회지,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의과학, Epidemiology and Health,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6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점 3.0 미만을 획득한 1종은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하오니 KoreaMed 등재 및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평점: 4.47)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Thai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Society, Japanese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Indian Motility and Functional Disease Association, Chinese Society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South East Asia Gastro-Neuro Motility Association, Taiwan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Society, Asian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Association 등 8개 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로 SCIE, SCOPUS, PMC 등 국제 DB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유수의 학술지로서 연 4회 발간됩니다. 평가대상이 된 2016년 4월호(229권 2호)에는 사설 2편, 종설 5편, 원저 13편, Image & Learning 1편, Journal club 1편,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2편 등 모두 24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목차, 투고규정 등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잘 관리되었습니다. 다만, 판권란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술이 명확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인쇄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들 표기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논문제목과 저자명에서는 오류가 없으나 저자 소속기관 표기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문초록도 비교적 잘 관리되었으나 Background/Aims 문장을 phrase로 처리한 논문(p.282)이 있어 일관성 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단어 선정이 부적절한 논문들(p.201, 272, 304)이 있습니다.

표에서 약어해설이 누락되었거나(p.171), 내부 정렬이 부적절하거나(p.188), symbol의 사용이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p.234)이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크기가 작고 해상도가 떨어져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든 논문들(p.194,233)이 있고, 도형그림에서는 그림에서 사용된 수치에 대한 해설이 누락되었거나(p.250), 고유명사를 소문자로 쓴 논문(p.260)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편집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권란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술하고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입니다.

2. Epidemiology and Health (평점: 3.82)

Epidemiology and Health는 한국역학회의 공식학술지로 open access, on-line journal이며 논문게재는 수시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On-line journal이어서 저작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발행인과 발행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편집위원회에 대한 웹페이지는 있지만, 인쇄본이 없는 학술지인 만큼 "Contact us"와 별도로 발행인과 편집인에 대한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투고규정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거의 갖추고 있으나, 단지 서두에 발간주체와 학술지 공식약칭을 추가하고, 책임저자의 연락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수치의 표기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p-value, SD, %를 포함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혼용되고 있어 투고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제목, 저자명, 영문초록, 본문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잘 관리되었습니다.

중심단어에서는 간혹 MeSH 용어가 아닌 경우가 있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었습니다. 표와 도형그림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논문(e2016009; Table 1, Figure 2, Appendix 1, 2에서 104가 106일 것으로 추정됨)이 있는데 오류로 판정되는 경우 이는 치명적인 오류로서 erratum 게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편집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판단되며, 계속 노력하면 SCI 등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 의과학 (평점: 3.82)

의과학은 대한의사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3회 발간됩니다. 금번 평가대상이 된 2015년 12월호(24권 3호)에는 논문 6편(일반적으로 논문은 그 성격에 따라 원저, 증설, 증례보고 등으로 분류하지만, 의과학의 투고규정에는 원고의 종류를 논문, 서평, 자료소개로만 분류하고 있음)이 게재되었습니다. 학술지로서의 의과학은 자연과학보다는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여 의편협이 사용하는 평가도구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렵고, 의과학 영역에서 의과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술지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표지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며, 디자인은 인문학 학술지의 특성에 맞게 고안되었습니다. 투고규정은 학술지의 특성 상 임상시험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의 영문표기 등과 같은 여타 의학학술지에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인문학 학술지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저자 역할에 대한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영문초록과 논문의 종류별 작성 요령 등을 조금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초록은 6편 모두 투고규정에서 규정한 500 단어를 초과하고 있어서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 관리를 하거나 학술지의 특성 상 장문의 초록이 필요하다면 투고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중심단어(Keywords)의 경우 투고규정에서 MeSH 용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모든 논문에서 임의로 중심단어(특히 고유명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논문의 검색과 인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심단어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 중심단어의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문초록과 중심단어에 漢字를 병기한 논문들이 있는데 인문학 학술지라 할지라도 영문초록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특정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문헌은 자료와 연구논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고, Harvard style에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참고문헌 기술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어 최근 국제적인 추세인 논문 자료의 디지털화 시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본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이 목록에서 빠져 있거나 목록에 있는 참고문헌이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며, 고전이나 사료 등은 참고문헌 목록에 수록하지 않기로 한 투고규정을 위해한 논문도 있습니다.

표는 학술지의 특성 상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표 내에서 사용된 약어의 해설과 영문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오래 된 자료를 수집하여 학술지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설명이 너무 빈약하여 독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특한 구조와 내용을 갖춘 학술지로서 의과학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지의 가치가 돋보입니다. 다만, 투고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비하고 참고문헌의 관리, 표와 사진 설명 등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한치과보철학회지 (평점: 3.42)

대한치과보철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됩니다. 이번 심사 대상이 된 54권 1호(2016년 1월호)에는 원저 3편, 증례 7편, 모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학술지로 표지 디자인은 세련되었고 오류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편집은 무난해 보입니다. 각 논문에서 말미에 저자의 ORCID 정보를 수록한 것은 좋은 점입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국내 논문 인용 비율도 이번 평가 대상 학술지 중에서는 좋은 편이었다. 참고문헌 오류가 낮은 것도 우수한 점이었습니다.

목차에서 논문을 원저, 증례로 구분하지 않고 증례의 제목에서 clinical report 등의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제목 중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 투고 규정에 일부 규정이 미비된 것, 오자가 있는 것, 투고 규정이 국문, 영문,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다문 받은 영문이 조금씩 다른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고 국문 투고규정에서 어떤 부분은 글꼴의 크기가 달라서 좀더 편집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초록에서 투고규정에서 정한 단어수를 초과한 논문, 중심단어에 약자가 나오는 것 등은 원고 편집인의 점검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고규정에는 '재료 및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게재된 논문에서는 '대상 및 방법'으로 기재한 논문이 있어서 이런 점들도 편집 과정에서 걸려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일부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화살표가 잘 보이지 않는 점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국문 초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술지이지만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이며 이런 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평점: 3.48)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은 1987년 6월 창간되어 연 4회 발행되고 있는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의 공식 국문, 영문 학술지입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6년 3월호(vol. 30, No. 1)입니다. 이번에 평가한 호에는 1편의 종설, 3편의 original article, 4편의 case report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상당히 세련되고 학회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투고와 관련된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잘 분류되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문 작성 요령에 위치한 논문 분류별 설명이 적절한데 종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authorship에 대한 명시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지 앞의 논문순서 제시에서 심사위원명단, 회칙, 임원명단, 공지사항, 학회소식에 page를 부여한 것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호 학술지 page 부여가 연결되어 있다면 contents에는 이 네가지 안내사항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의 저자의 이름과 소속 표기에서 일부 논문에서 이름과 소속의 순서가 바뀌어서 통일성이 부족 하였습니다. Kew Words에서도 일부가 MeSH에 검색이 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IRB 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편집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figure, table의 약자나 단위 등은 잘 표기 하였습니다. 다만 table에 unit가 드물게 빠져 있었고 figure에 table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Figure 현미경 사진에서 배율과 염색명이 잘 들어가 있던 하나 빠짐없이 표기하는 것이 좋겠고 병변을 화살표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 문헌은 대부분 투고 규정에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책에서 인용한 경우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규정자체가 참고문헌을 영문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다시 한글로 표시한 점은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PubMed에 index되기 원한다면 과감히 한글 부분을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점을 보완한다면 역사가 긴 아주 좋은 학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은 1990년 창간되어 연 1회 발행되다가 점차 연 발행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연 6회 발행되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의 공식 한글학술지로, 금번 평가대상은 2016년 2월호(vol. 27, No. 1)입니다.

우선 표지도안은 상당히 세련되며 본문에 삽입된 그림을 표지에 배치하여서 궁극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가지 그림 모두 해상도가 다소 좋지 않고 어느 논문에 나온 그림인지 알리기 위해 논문 시작 page를 제시하고,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contents list 밑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 규정 및 편집인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통장번호와 통장주인을 여러 번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초록이 좌우 2 단으로 되어 있어 통일성이 조금 낮고 교신저자를 한글로 제시한 후 key words 아래에 다시 영어로 제시하는 등 다소 다소 조야하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초록제시는 통으로 하고, 교신저자 안내를 일관성 있게 한글, 영문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각 본문의 소제목을 '서론', '대상과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으로 정하여서 통일성이 있어 보였고 회색 상자로 표시를 하여서 읽기 편하였으나 영문논문 하나는 Conclusion이 없어 일관성을 조금 잃기도 했습니다. 초록 다음의 'article summary'가 있어서 본문을 읽을 때 주제에 집중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한 점이 장점으로 생각되나 각 논문마다 그 형식이 다소 일치하지 않아 Author's instruction에 이에 대한 guide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Table에 그림이 삽입되고 그림에 table 형식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그림 중에 가계도로 환자군을 나타낸 그림이 몇 개 있었는데 형식이 각 논문마다 달라서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도형그림에서는 글씨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 그림 아래에 설명하는 도형의 위치가 A, B가 각각 달라 일관성이 다소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몇몇 개의 띄어쓰기, 붙여쓰기의 오류가 보이고 있어 교정 작업 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표기에서는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참고문헌에 대한 어개 번호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오류는 보이지 않았습니.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서도 통일성이 유지 되었습니다. 이번에 평가한 대한응급의학회지 제27권 제1호(2월호) 통권 115호에는 17편의 original article과 2편의 case report가 게재되어 있는 등 상당히 많은 수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 게재된 논문의 대부분이 original article인 점은 이 학회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Manuscript Editing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평점: 3.5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은 1990년 창간되어 연 1회 발행되다가 점차 연 발행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연 6회 발행되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의 공식 한글학술지로, 금번 평가대상은 2016년 2월호(vol. 27, No. 1)입니다.

우선 표지도안은 상당히 세련되며 본문에 삽입된 그림을 표지에 배치하여서 궁극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가지 그림 모두 해상도가 다소 좋지 않고 어느 논문에 나온 그림인지 알리기 위해 논문 시작 page를 제시하고,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contents list 밑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 규정 및 편집인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통장번호와 통장주인을 여러 번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초록이 좌우 2 단으로 되어 있어 통일성이 조금 낮고 교신저자를 한글로 제시한 후 key words 아래에 다시 영어로 제시하는 등 다소 다소 조야하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초록제시는 통으로 하고, 교신저자 안내를 일관성 있게 한글, 영문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각 본문의 소제목을 '서론', '대상과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으로 정하여서 통일성이 있어 보였고 회색 상자로 표시를 하여서 읽기 편하였으나 영문논문 하나는 Conclusion이 없어 일관성을 조금 잃기도 했습니다. 초록 다음의 'article summary'가 있어서 본문을 읽을 때 주제에 집중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한 점이 장점으로 생각되나 각 논문마다 그 형식이 다소 일치하지 않아 Author's instruction에 이에 대한 guide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Table에 그림이 삽입되고 그림에 table 형식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그림 중에 가계도로 환자군을 나타낸 그림이 몇 개 있었는데 형식이 각 논문마다 달라서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도형그림에서는 글씨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 그림 아래에 설명하는 도형의 위치가 A, B가 각각 달라 일관성이 다소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몇몇 개의 띄어쓰기, 붙여쓰기의 오류가 보이고 있어 교정 작업 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표기에서는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참고문헌에 대한 어개 번호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오류는 보이지 않았습니.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서도 통일성이 유지 되었습니다. 이번에 평가한 대한응급의학회지 제27권 제1호(2월호) 통권 115호에는 17편의 original article과 2편의 case report가 게재되어 있는 등 상당히 많은 수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 게재된 논문의 대부분이 original article인 점은 이 학회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Manuscript Editing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